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 편지 · 편지 3: 길레스피가 에드워즈에게 (1748. 9. 19)

『신앙감정론』 부록 '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편지 3, 인쇄 677~691쪽

### 🧭 흐름 한눈에

이 편지는 에드워즈의 글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목사 길레스피가 에드워즈의 앞선 답장(편지 2)을 읽고 다시 반박하며 묻는 편지입니다. 에드워즈의 생각은 길레스피가 인용한 문장으로만 등장합니다. 길레스피는 먼저 “영적인 빛이 없어도 믿을 의무가 있다”는 말이 옳다고 다시 주장합니다. 이어 신자가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 죄에 빠진 신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먼저 “너는 내 자녀다”라는 확신을 주신다고 주장하며, 요나·예레미야·호세아를 근거로 듭니다. 에드워즈가 목회 경험을 근거로 반론한 데에는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시금석”이라고 답합니다. 끝으로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어떻게 답할지 묻습니다. 휫필드의 스코틀랜드 방문 소식과 안부로 편지를 마칩니다.

###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 절별 정리

### 📜 1. 편지를 다시 쓰는 이유

길레스피는 지난봄 에드워즈의 답장을 받고 감사했지만 사정이 생겨 답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반론을 쓰는 이유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드워즈의 “진정한 친구들과 동지들”에게 에드워즈의 뜻을 바로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자기가 에드워즈를 잘못 이해했다면 고쳐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 서신은 서로 존중하는 두 개혁주의 목사가 확신 문제를 두고 벌인 진지한 토론입니다.

1. 편지 3은 길레스피의 재반론이다
2. 목적은 스코틀랜드 동지들에게 뜻을 알리는 것
3. 오해가 있으면 고쳐 달라는 겸손한 태도

> **(이 단락엔 인용 구절 없음)**
> —

## 📜 2. 영적 빛이 없어도 믿을 의무가 있는가

에드워즈는 앞선 편지에서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을 의무가 있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채로 믿는 것이 의무다”라는 말은 “신앙 없이 믿으라”는 말과 같아서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빛(시각)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곧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게 하는 은혜를 뜻합니다. 길레스피는 이 구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빛 없이는 실제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 빛이 없던 사람이 “나는 믿어 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빛이 없는 동안에도 믿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고집합니다. 그 근거로 “능력에 따라 의무의 규범이 바뀌지 않는다”는 격언을 듭니다. 이것이 참이 아니라면 끝까지 믿지 않은 죄인을 불신 때문에 정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끝으로 그는 성경 어디에도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른 곳은 없다고 덧붙입니다.

1. 쟁점: 의무의 근거인가, 믿음의 실제 행위인가
2. 길레스피: 빛이 없어도 믿을 의무는 남는다
3. 능력이 없다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3:19~20**

빛을 미워해 믿지 않은 자가 정죄받으므로 믿을 의무는 능력과 상관없이 있다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능력에 따라 의무의 규범이 바뀔 수는 없다"

## 📜 3. 신자가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죄다

에드워즈는 길레스피가 "구원받은 상태를 의심하는 것이 믿음과 정반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레스피는 그렇다고 분명히 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기대하는 것, 곧 자신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믿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며 그것을 의심하면 죄이자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신앙과, 자신에게 신앙이 있다고 믿는 것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뒤의 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길레스피는 이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구원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예컨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에 기초하므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는 회심하지 않은 죄인의 '신앙 없음'과 신자의 '의심'은 다르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자의 의심은 성령의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고 성령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거짓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 길레스피: 확신은 의무, 의심은 죄이자 불신
2. 확신의 토대는 내 내면이 아니라 약속
3. 에드워즈: 신앙과 '신앙 있다는 믿음'은 다르다
4. 신자의 의심은 성령의 일을 부인하는 것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신자의 필수 의무이고, 확신의 토대다

>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9**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떠나지 말라" — 확신 자체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다

>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로마서 8:15**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떼어 놓을 수 없다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태복음 14:31**

성경은 의심을 믿음의 반대로 묘사한다(마태복음 21:21, 마가복음 11:23도 같음)

>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요한일서 3:3**

주를 향한 소망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므로 소망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2:12, 15**

죄 용서받은 확신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동기가 된다

> **요한일서 2: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일서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히브리서 10:35**

담대함(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명령은 끝까지 믿으라는 요구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신앙과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에드워즈의 말을 길레스피가 인용)

## 📜 4. 욥과 바울: 확신을 지킨 성도들

길레스피는 확신을 지킨 성경 인물로 욥을 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며 그가 위선자라고 결론 내리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가 나를 죽이셔도" 그분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했고, 자기 안에서 죄가 솟아날 때도 주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길레스피는 이것을 하나님이 욥의 확신을 승인하신 것으로 읽습니다. 바울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는 은혜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자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길레스피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의심은 처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더라도, 믿은 뒤에 약속을 믿고 사는 삶과는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을 빌려 주어서 에드워즈 책의 266~267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둘의 정확한 차이는 짚었다고 말합니다.

1. 욥은 위선자 판정을 거부하고 확신을 지켰다
2. 하나님이 욥의 말을 '정당하다' 하셨다
3.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확신을 '자랑'했다
4. 의심은 믿은 뒤의 믿음 생활과 반대된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기 27:5**

죽기 전에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 위선자 판정을 거부함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42:7**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하심 — 길레스피는 이를 확신에 대한 승인으로 읽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12**

바울이 은혜의 원리에 참여한 확신을 자랑으로 여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 📜 5. 죄에 빠진 신자, 확신으로 회복되는가

에드워즈는 앞선 편지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악하고 육적인 삶에 빠진 성도에게 그 삶을 계속하는 동안 먼저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그 확신으로 건져 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박이었습니다. 길레스피는 이것이 자기 말을 과장한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은 신자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둠과 영적 퇴보(믿음이 식고 뒤로 물러나는 상태)에서

신자는 탄식할 수 있고 풀려날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악의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므로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1. 에드워즈: 죄 속에 둔 채 확신부터 주시지 않는다
2. 길레스피: 내 말이 과장되게 전해졌다
3.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무
4. 죄 속에서도 탄식과 소망은 가능하다
5. 신뢰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특권

> **로마서 7:24**
> 죄에 빠진 순간에도 신자는 “곤고한 사람”이라 탄식할 수 있다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시편 65:3**
> 죄가 이길 때도 정결케 하실 것을 소망한다(번역본에는 '시 15:3'으로 표기, 문맥상 65:3으로 봄)
>
>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 **이사야 26:4**
>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라는 명령
>
>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 **마가복음 5:25**
> 혈루증 여인처럼 최악의 병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져 고침받으라는 권면
>
>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 📜 6. 요나: 퇴보한 신자가 확신으로 돌아온 예

길레스피가 가장 길게 다루는 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고의로 어겼습니다. 폭풍 속에서 사공들이 각자 신을 부를 때 그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따지실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처럼 보일까 봐 도망쳤다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 곧 '영혼의 추악함'이었습니다. 길레스피는 이런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데 주목합니다. 성령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 확신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건지셨습니다.

1. 요나는 고의적 불순종과 무관심에 빠졌다
2. 이기심과 교만은 '영혼의 추악함'이었다
3. 물고기 배 속에서 '내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짐
4. 그 확신에서 기도와 구출이 시작됐다

> **요나 1:2~3**
>
> 선지자가 분명한 명령을 고의로 거역함 — 퇴보의 심각함
>
>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 **요나 1:5~6**
>
> 폭풍 속에 잠든 요나 — 부주의와 무감각
>
> 5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2:4**

쫓겨났어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 퇴보 중 되살아난 확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 2:7**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니 기도가 상달됨 — 확신에 기초한 기도와 응답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 📜 7. 예레미야·호세아, 그리고 "체험보다 성경"

길레스피는 자기 주장의 가장 분명한 증거로 예레미야 3장을 듭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을 부르시며 먼저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새 언약 관계(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은혜의 관계)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도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맨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길레스피에게 이것은 확신이 회복의 도구라는 증거입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본 많은 사례에서 퇴보한 성도의 회복은 다른 순서로 일어났다고 썼습니다. 먼저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겸손을 경험한 뒤에야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길레스피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쓰실 수 있고,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성경이라는 오류 없는 시금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또 에드워즈의 편지를 읽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인 죄의 지배”

2. 에드워즈: 경험상 깨달음→두려움→겸손→위로
3. 길레스피: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시금석이다
4. '죄의 지배'에 대한 설명은 더 잘 이해했다

**예레미야 3:14**

"나는 너희 남편" — 배역자를 부를 때 언약 관계부터 확인하심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22**

"배역함을 고치리라" — 확신이 배역을 고치는 도구라는 주장의 근거

>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14:1**

넘어진 백성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네 하나님 여호와"

>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고린도후서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게 함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은 무오한 시금석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 8.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길레스피는 에드워즈의 유혹에 대한 답에 감사하며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뵈티우스가 'obsessio'(악한 영에게 바깥에서 끊임없이 시달림)라 부른 상태입니다. 악한 영들은 헛된 생각, 악한 생각, 못 한 일에 대한 생각을 넣고, 심지어 성경 본문이나 영적 진리로도 마음에 침입해 더럽히고 좌절시킵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논쟁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사탄에 자극받아 헐떡이며 길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사탄이 바라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의학적·도덕적·신앙적 수단을 다 써 보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위로도 없고, 무감각해지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길레스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진리에 대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편지에는 답이 없습니다.

1. obsessio: 바깥에서 끊임없이 시달림
2. 성경 본문까지 침입 통로가 될 수 있다
3. 논쟁·조급한 기도는 사탄이 바라는 것
4. 의학적·신앙적 수단을 다 써도 무감각
5. 질문: 영적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나

> **(이 단락엔 인용 구절 없음)**
> —

### 📜 9.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길레스피는 사실이나 미래 일에 대한 직통 계시(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직접 알려 주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드워즈의 세 저작에 나온 입장을 지지합니다. 브레이너드 장례 설교에서 에드워즈가 언급한 브레이너드의 견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 답을 청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6:13이 “장래 일을 알리리라”고 약속한다. 둘째, 그런 계시는 성경에 반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계속될 수 있다(요한복음 13:24~27이 예). 셋째, 성경과 관계없는 일이니 성경에서 정보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넷째, 여러

되묻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일으키려고 작정한 일은 미리 알 수 있다고 답하면, 그런 논리는 성경 예언의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근거를 약화시킨다고 반박합니다.
길레스피는 이 교리가 영국과 뉴잉글랜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는 직통 계시를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전부 거부하든지 전부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이고 중간 길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옛 신자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놀랐다고도 합니다. 참고 자료로 플레밍의 『성경의 성취』, 굿윈의 저작, 히브리서 11장을 제안합니다.

1. 길레스피는 에드워즈의 반대 입장을 지지
2. 주장자 근거: 요한복음 16:13, 하나님의 주권
3.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4. '사탄 출처' 답변에 대한 재반박이 난제
5. 전부 거부 아니면 전부 허용, 중간 없음

> **요한복음 16:13**
> 직통 계시 주장자들이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약속으로 내세우는 구절
>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 **요한복음 13:24~27**
> 주장자들이 개인적 계시의 실례로 드는 장면(예수께서 배신자를 알리심)
>
>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 **히브리서 11장**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 📜 10. 『기도 합주회』, 휫필드 소식, 맺음

길레스피는 에드워즈의 『기도 합주회』(Humble Attempt)를 만족스럽게 읽었고, 마지막 날의 영광에 대한 성경의 그림에 매혹되었다고 말합니다. 해석이 어려웠던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문제에서 “일곱째 나팔이 아직 불리지 않았으니 두 증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에드워즈의 답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 휫필드가 지난 수요일 에든버러에 도착해 목요일 저녁 설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길레스피는 15마일(그중 2마일은 바닷길) 떨어진 곳에 살아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가 큰 영적 메마름에 빠져 있다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휫필드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휫필드가 기부금을 모으지 않는다는 소식에 동지들이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휫필드가 뉴잉글랜드의 실수를 바로잡는 사역을 했다는 에드워즈의 소식을 듣고, 스코틀랜드에도 그런 “해독제”를 처방해 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28 설명에 감사하고, 뉴잉글랜드 소식과 에드워즈 자신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청하며, 아버크롬비 목사에게 안부를 부탁하고 편지를 맺습니다.

1. 『기도 합주회』와 두 증인 해석에 공감

4. 휫필드가 실수를 바로잡는 '해독제'가 되길
5. 에드워즈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청함

> **로마서 8:28**
> 에드워즈가 앞선 편지에서 설명해 준 구절, 길레스피가 감사함
>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영적인 빛(시각)**
성령이 주셔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참된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고 맛보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믿을 의무**
사람에게 믿을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믿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는 책임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쟁점은 그것이 믿음 자체인지, 믿음을 돌아보는 별도의 판단인지입니다.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믿는 것과 달리, “내가 정말 믿고 있나”를 살피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영적 퇴보**
참 신자의 믿음이 식고 죄와 무관심 쪽으로 뒷걸음질 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아내나 자녀처럼 붙드시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죄의 지배**
죄가 가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상태로, 에드워즈는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봅니다.

**obsessio**
뵈티우스의 용어로, 악한 영에게 안에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직통 계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사실이나 미래 일을 직접 알려 주신다는 주장입니다.

**위선자**
참 은혜가 없는데도 신자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 ⚖️ 거짓과 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이 편지는 길레스피의 재반론이며, 에드워즈의 생각은 인용으로만 나옵니다.
- 쟁점은 확신이 믿음 자체인지, 의심이 언제나 죄인지, 퇴보한 신자가 확신을 먼저 받는지입니다.
- 길레스피는 요나·욥·예레미야·호세아를 들어 확신을 붙드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 에드워즈는 신앙과 '신앙 있다는 믿음'을 구분하고, 회복은 깨달음과 겸손을 거쳐 온다고 봅니다.

- 두 사람은 직통 계시를 경계하는 데는 같은 편이며,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직통 계시 문제는 답을 기다리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5편 · 사탄도 흉내 내지 못하는 것 · 길레스피에게 보낸 편지와 내 신앙 점검표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